

시론



신준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올해도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또 때맞춰 봄비가 내려 온 대지를 적셔 주고 있다. 봄비는 '만물을 살리는 좋은 비'라는 뜻으로 감우(甘雨)라고도 '때에 맞게 내리는 비'라는 뜻으로 시우(時雨)라고도 불린다.

또한 '만물을 적시되 소리가 없다'라는 윤물무성(潤物無聲), '농사에 꼭 필요한 귀한 비'라는 춘우여유(春雨如油)라고도 한다. 특히, 두보(杜甫)는 '춘야희우(春夜喜雨)'라는 시를 통해 겨우내 가뭄을 해소해 만물을 소생시킬 봄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봄비만 내린다고 해서 만물이 소생되는 것은 아니다. 봄비를 기다리는 동안 대지를 포함한 만물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을 소생시킬 준비가 돼야 한다.

주역(周易)의 진괘(晉卦)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는 단번에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는다. 어둠을 뚫고 서서히 올라오며 점진적으로 밝아진다. 여기서 진(晉)은 해(日)와 이르다(至)의 합성어로 '해가 떠올라 만물이 성장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 과정에는 진진과 지체, 상승과 저항이 반복된다고 본다.

봄비를 기다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진괘에서는 이를 "진여취여(晉如摧如)"로 풀이하고 있는데, 나아가려(晉如) 하지 만 때로는 꺾이고(摧如), 다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자연스러운 단계로 보고 있다.

진괘의 상사(象辭)는 이를 더욱 명확히 설명한다. "君子以自昭明德(군자이자소명덕)" 군자는 스스로를 비취 밝히고(自昭), 그 안의 밝은 덕(明德)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모든 배움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서 출발한다. 외부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의 변화이며, 진정한 성장은 그 변화가 쌓일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는 대학(大學)의 첫 구절인 "大學之道在明明德(대학지도 재명명덕)"을 통해 배움의 길은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는 의미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배움을 위해서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 절실함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증명된다. 절실함은 조급함과 다르다. 조급함은 결과를 앞당기려는 마음이지만, 절실함은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힘이다.

이 차이는 결국 배움의 깊이를 결정한다. 빠르게 얻은 성과는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절실함 속에서 축적된 성장은 오래 지속된다. "求學切如 春望雨(구학절여 춘망우)" 배움을 구하는 절실한 마음이 마치 봄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뜻인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인생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생도 이와 같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결과가 늦어지는 시간은 결코 실패가 아

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용감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는 고통을 동반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주변의 시선까지 신경 쓰게 만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불편함 속에서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 아무런 시행착오 없이 얻어진 결과는 오래 남지 않지만, 실패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린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하는 삶이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강하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아직 인생의 봄비는 내리지 않았을지라도 절실한 마음으로 봄비를 기다리며 때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이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순한 성과의 축적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과 마음가짐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社說

합중연희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선거도 정책 경쟁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전에 합중연희가 가속화되고 있다. 5월 초 연휴 직전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예비후보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장관호 예비후보도 광주지부장을 지낸 정성홍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출마자는 강숙영 김대중재단 전남지부 탄소중립위원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 5명으로 압축됐다. 남은 한달 추가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최종 3인으로 재편될 것이라 전망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과의 물밑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대진표는 사실상 완성됐다. 민주당 민형배·국민의힘 이정현·진보당 이종욱·정의당 강은미 후보의 4자 구도다.

초광역 행정통합으로 판이 커진 만큼 특별시장도 그렇고 교육감까지 '깜깜이 선거'로 선출해야 하느니며 시민들 사이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후보들이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상대를 흠집내기 위한 네거티브로 치중하는 분위기에 실망스런 모습이다. 김대중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박과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한차례 호텔 카지노에 들렀다. 과장된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다른 예비후보는 "사적 활동에 썼다면 공공 형량이자 배임"이라고 해명과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전남광주 교육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등 할 일이 많다. 교직원 인사와 수조원의 예산 편성·집행권 행사, 학교의 설립·폐지까지 결정하는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우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유권자들이 더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선 안되는 이유다.

이름도 모르고 뽑는 선거, 진영 논리에 매몰된 과거와는 결별해야 한다. 예비후보도 자신이 준비된 리더임을 입증해야 한다. 건강한 정책 대결의장이 펼쳐지길 바란다.

5월 출시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 상품이 매력적인 이유

경전선(목포-부산)을 활용한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 상품이 출시됐다. 새로 연결된 목포-보성선 개통을 기념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주·울산·경남 4개 시도, 한국철도공사가 협력해 추진한다. 목포-보성선은 총연장 82.5km의 단선전철로 총사업비 1조 6천400억원이 투입돼 2022년 첫 삽을 뜬 지 23년만에 공사를 마쳤다.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당한 전남 남부권과 완도·진도 등 도서·내륙도 서울과 부산 이동이 편리해졌다. 향후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전철화까지 마무리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KTX로 2시간 20분대로 줄어든다.

남도 기차둘레길은 기차역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1박2일 관광 코스로 운영된다. 보성·광주, 부산·울산, 진주·하동, 해남·장흥편 등 4개 코스로 매주 토요일 출발해 다음날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열차와 버스, 숙박비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더 매력적이다. 특히 보성, 장흥, 해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차 이용료 75%, 단체버스 70%, 숙박 50% 등 타 시·도보다 높

은 수준의 할인이 지원된다. 남부권이 철도 상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K-관광의 새로운 기반으로 도약해야 하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유의 맛과 멋 등 남도다움을 살려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도 기차둘레길은 이달부터 운행하며, 현재 모집중이다.

철도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 편익이 크게 개선되면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로 역할할 수 있다. 남도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미식을 체험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 주목받는다. 남해안 철도관광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부산역과 부천역에서 '목포-보성선 철도관광' 홍보전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수요 선점을 위한 마케팅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 수요층인 부산경남권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 맞춤형을 확대하길 바란다. 학생 체험학습·수학여행단 유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혜택을 집중해 알려야 한다.

자치칼럼



임우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지난 3월31일, 국회는 우리 지방자치의 당면과제인 주민자치회 전면 설치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0년 김대중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로 시작한 우리의 주민자치 도입은 이명박정부의 주민자치회 근거법 마련, 박근혜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시행을 거쳐,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국회의 거부로 좌절됐다 이번이 마지막의 결단이다.

그동안 주민자치 도입 26년, 시범실시 14년, 국회의 제동, 윤석열 정부의 주민자치 말살 등으로 우여곡절을 거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를 제대로 정착시켜 진정한 선진민주국가로 도약해 가야 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 전면 실시되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정도적 자치활동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주민자치의 성공 및 실패사례들을 주민자치 성숙 발전의 소중한 기반이 되도록 삼아 현상에 적합한 제도, 정책, 문화로 정립해 가야 할 일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장의 문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아직도 전국의 절반 이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의 성공조건

는 극히 일부의 자문역할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에도 수준낮은 주민자치가 장기화되면서 주민자치회의 정치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잔존해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듯이, 주민자치의 긍정적 효과는 정도자치를 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윤석열정부가 3년 동안 주민자치 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주민자치 운영행태를 보였는데, 독자적으로 주민자치 정책을 지속한 곳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부분은 주민자치회가 방향을 잃고 관치적 운영으로 후퇴했다는 점이다.

셋째, 주민자치회 등 일선 업무는 선거직인 기초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단체장 휘하에 있는 공무원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단체장, 의원,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적인 지원 육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 없이는 주민자치회의 자치 의식과 역량 함양은 물론, 정치 중립적인 자치회 운영도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민자치회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과 교훈처럼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할 경우,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우리 주민자치가 단순한 제도운영이 아닌 정도자치로 뿌리내리고 공동체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운영 윤리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은 자치위원들의 책무이기

도 하지만, 단체장, 의원, 그리고 후보자들도 자신의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 자치역량 교육을 전문화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은 단순 소양 교육에서 벗어나 예산편성, 갈등관리, 정책기획 등 실질적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다. 동네자치회는 주민들의 열정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자치기획과 회계처리를 담당할 상근 사무국(간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마을사업 과정에 공무원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치조직을 단계별로 전문화하고 현장 컨설팅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들은 주민자치회를 관리대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주민자치회는 귀찮은 통제대상이 아니고, 자치 의식과 역량을 육성해내야 할 책임단체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치회의 일을 대신 해주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지도 지원 육성의 노하루를 익혀야 한다.

오는 7월 새로 출범할 민선9기 지방정부는 이재명정부의 함께 그동안 위축된 주민자치를 복원해 정도적 주민자치로 정착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 자신부터 정치적 세력화에 대한 유혹을 내려놓고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을 믿는 만큼 자치가 성장한다'는 명제를 증명한다는 자세로 정도자치 실현에 매진한다면 진정한 주민자치 정착은 물론, 성공한 단체장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을 확신한다. 뜻있는 단체장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보행자 사고와 관련,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관련 위반시에 엄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범칙금(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할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는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전방 차량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안전 유의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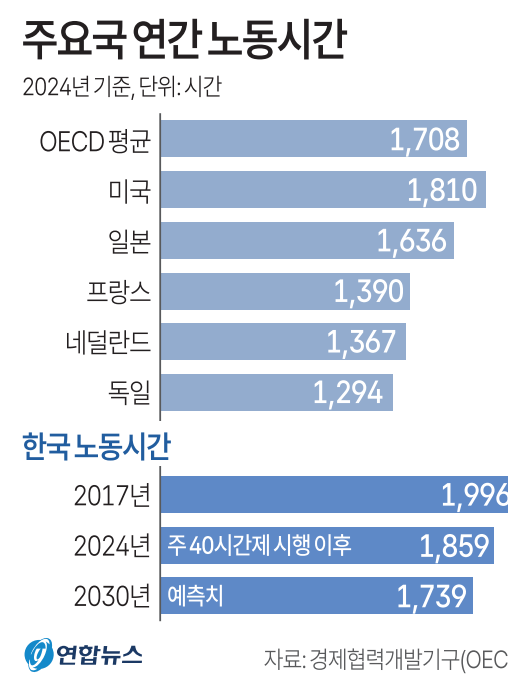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우회전 할 때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보행안전에 위해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전병진·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그래픽 뉴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축 추세로는 실제노동시간이 2030년 1천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 관측이 나왔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조사개발계획이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천739시간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부합한다. 노동부는 2024년 한국의 실노동시간 1천859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08시간)인 1천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천996시간에서 2024년 1천859시간으로 137시간이 줄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감소의 원인으로서는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를 꼽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긴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